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12.16일 개최(비대면)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공표하였음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문의처 :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팀장 서평석, 과장 백윤아, 조사역 홍준의

Tel : (02) 750-6829, 6832, 6869 Fax : (02) 750-6856 E-mail : bokbcbs@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38,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붙임)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의 주요 내용*

* BCBS가 2022.12.16일 발표한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동 내용을 활용할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https://www.bis.org/bcbs/publ/d545.htm>)

I 경 과

- BCBS는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해 옴
- 금번 GHOS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공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 규제안을 승인·공표(22.12월)하였으며 규제 이행시기를 2025.1.1일로 설정

BCBS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규제안 논의 경과

일시	주요 결과
2018. 9월	은행의 암호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 검토 결정
2019. 3월	「암호자산에 대한 성명문」(「Statement on crypto-assets」) 발표
2019.12월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Designing a prudential treatment for crypto-assets」)에 관한 공개협의안(discussion paper) 발표
2021. 6월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1차안) 발표
2022. 6월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2차안) 발표
2022.12월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최종안) 발표

II

규제안의 주요 내용(SCO60*)

* 동 규제안은 바젤Ⅲ 기준서 내 SCO(범위 및 정의 파트)60으로 신설되며 암호자산의 정의, 분류요건, 리스크 측정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기본 방향

□ 규제안은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BCBS, 19.12월)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

* 동일위험·동일활동·동일규제, 간결성 및 최소규제

○ ①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② **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 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③ **감독기관 감시**(Pillar2), ④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

암호자산의 분류

□ **(그룹1)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토큰화(tokenized) 전통 자산(그룹1a) 및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그룹1b)**

* 그룹1 분류 요건은 ① 형태, ② 법률·결제 체계, ③ 리스크 관리 인프라, ④ 감독 체계 등으로 구성(3페이지 표 참조)

○ **토큰화 전통자산**은 주식, 채권, 상품(commodity) 등 전통자산의 소유권을 중앙 증권예탁계좌나 수탁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리스크를 갖는 것

-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은 가치가 준거자산(전통자산)에 **상시·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암호자산이 준거자산의 시장가치와 동등한 금액 등으로 **환매 가능**하고 암호자산 **가치의 변동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은행은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암호자산이 **환매리스크 테스트***를 통과하고 **금융당국이 암호자산 발행자를 감독·규제**해야 함
 - * 암호자산의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암호자산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 그룹1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Ⅲ 체계**상의 기존 위험가중치를 적용

그룹1 암호자산 분류 요건

분 류	내 용
1. 형 태	토큰화 전통자산 또는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춘 암호자산일 것
2. 법률·결제 체계	암호자산 계약(arrangement)상의 모든 계약적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가 명확히 정의되는 한편 환매, 발행 및 결제를 보장하는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을 것
3. 리스크 관리 인프라	암호자산의 기능*이나 운영 네트워크가 결제의 완결성, 환매·이체 가능성 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리스크(material risk)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 * 암호자산의 발행, 거래검증(validate), 환매, 이체 등
4. 감독 체계	암호자산의 환매, 이체, 저장, 결제 완결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들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감독될 것 * 암호자산 이체 및 결제시스템 운영자, 안정화 메커니즘 관리자, 안정화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 수탁자 등

- **(그룹2)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보(unbacked) 암호자산으로, **헤지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

* 헤지 인식 조건: ① **규제된 상품**으로 헤지할 것(예: 그룹2 암호자산 현물 익스포저를 보유하는 경우 당국의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이 존재해야 함), ②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할 것, ③ **가격, 거래량, 시가총액** 등에 대한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존재할 것

-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여 더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적용

— 다만,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netting)를 통한 **순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고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

주요 신설 규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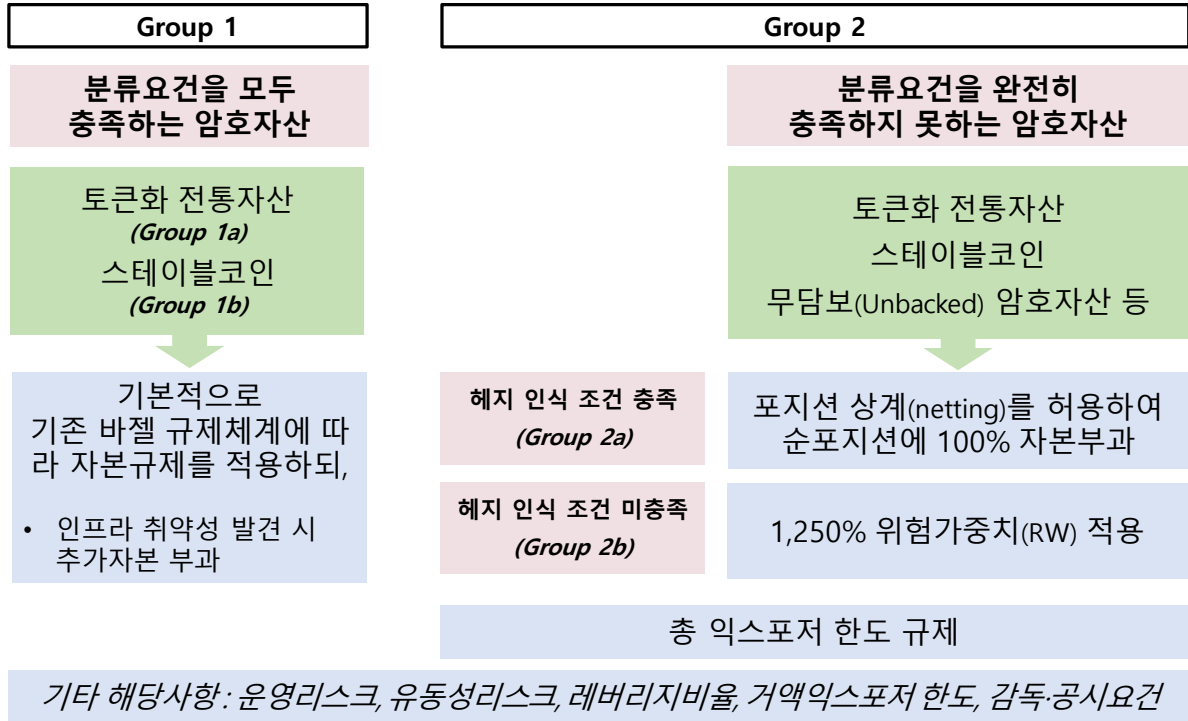
- **(인프라 리스크 규제)**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 (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를 통한 순 익스포저 기준,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 기준으로 산정

-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

암호자산 분류체계 및 건전성 규제안 개관



Ⅲ 이행 시기 및 향후 계획

- 이행 시기는 **2025.1.1**일로 설정
-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
 - 더불어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